

통일건축산업의 교류를 위한 학계의 준비 사항

The Preparation strategy of ALK for the Exchange of the Unified Architecture Industry

박진철 Park, Jin Chul

참여이사, 통일건축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incpark@cau.ac.kr

머리말(대한민국은 이미 1000여 년의 통일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다)

Edward Hallet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역사를 들추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인간생존의 영원한 수수께끼를 풀기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단군 이래의 수천 년의 역사속에 아주 작은 한 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668년 신라의 삼국통일로 한반도에서는 비로소 통일국가시대가 시작되었다. 비록 후삼국시대에(892~936) 잠시 분열이 있었지만 936년 고려왕건의 재통일로 한반도에서는 1945년까지 통일국가를 약 100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서기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는 잠시 외세의 침입은 있었지만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고조선 이래 타 민족에 의해 밀려나거나 소멸되어 민족의 교체 혹은 단절이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의 중국인 경우 선비족, 여진족 등에 의해 민족 주도권이 교체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야요이 시대가 조몬시대를 단절시켰고 유럽 대다수 국가의 경우에도 여러 민족이 대륙 내를 이동하면서 특정 지역의 민족 주도권이 수시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즉, 이상의 몇 가지 역사자료만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일민족으로서 단 한번도 민족단절이 없었던 매우 우수하고 자랑스런 민족임에 분명하다. 단지, 고려시대 이후 1000여 년의 통일국가에서 몇 번의 외세의 침

탈이 있었고 특히, 지난 1945년에는 외세의 강압에 의하여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또한 뼈아픈 남북간 민족전쟁을 겪었다. 이제 남북 분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남북이 다시 재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의 대 염원의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고 한다, 이는 지나온 역사를 교훈 삼으면 장차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분명 지구상의 전 세계속에서도 유구한 통일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단지 긴 역사속에 우리는 잠시 외세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갖고 있을 뿐이다.

동서분단 후 통일 30년을 맞은 독일의 통일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즉, 동서독은 통일전부터 사전에 서로 많은 교류와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동서독은 분단 후 70년대 부터 “1민족 2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외국이 아닌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교류를 시작하였다. 특히, 서독은 동독경제를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격금지과 여행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택하였다. 한편, 문화교류는 양측의 견해차이로 협상시작후 13년만인 1986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문화교류가 늦어진 이유는 동독에서 서독문화의 침투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역작용될 것을 우려한 대응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화교류가 체결된 이후에는 학술문화행사 등에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교류는 커녕 교류관련 기본조약현실은 독일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통일건축산업을 위한 학계의 준비 사항

대한건축학회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분단역사와 같이 지난 1945년도에 설립되어 75년 동안 건축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에 대한 법제도를 제안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의 학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건축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통일대비관련 학술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였고 특히, 학회내에 “통일건축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와 간담회 등 학술행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 전부였다.

비록 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그동안 학회위원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최근 북한은 경제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나진선봉지구와 마식령, 원산갈마 및 금강산 관광지역을 속히 개발하여 관광객을 대폭 늘려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하고자 한다고 한다. 또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개건 및 신축 등 건설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잘 알다시피 세계 최상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은 전혀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건설기술분야는 약 90%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 국내 최고의 건축학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한-중-일 국제건축학회 교류에 반드시 북한을 포함하여 교류

먼저 북한의 건설분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건축학회와의 문화교류를 확대시켜 북한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협정을 맺는다. 특히,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ISAIA)에 북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도 같이 참여하도록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지난 독일 교훈을 되짚어 볼 때 동독에서 문화교류를 초기에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고려하여 반대하여 늦어진 점을 고려하면 북한도 분명 남북과의 1:1 문화교류는 체제유지 역효과 등으로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체육 교류인 경우는 북한도 마지못해 개방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남북간 1:1 건축교류보다 중국을 포함한 3국의 건축교류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인내심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통일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건축문화교류를 중국-북한과 함께 공유하고 특히, 북한에서 추구하는 관광특구와 대도시 주택난 해소에 우리가 앞서있는 건축기술을 학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회에서 실시하는 해외 건축기행을 중국건축학회와 연계하여 북한하고도 공유하여 북한의 관광객유치 확대와 관련하여 3국이 건축기행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교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과거는 현재에 비쳐졌을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현재도 과거의 조명속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역사는 예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위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면 2000여 년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분명 지구상의 유구한 통일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고 단지 잠시 외세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어 있을 뿐이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 재통일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국가를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왼손으로 주고 오른 손으로 바로 받으려고 하

는 조금증을 버리고 지금까지도 견뎌왔듯이 기다림과 인내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폐쇄된 북한의 문을 두드리 건축기술교류가 되도록 준비와 노력을 하면 반드시 문은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1. Edward Hallet Carr, What is History
2. 위키백과(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재통일)

3. 통일건축산업위원회, 통일건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필자 소개

박진철 교수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석·박사(Post-Doc. 미시간대) 학위를 취득하였고 학회내 건축설비, 실내공기환경 및 교육원 등의 각종 위원장과 선출직 총무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친환경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